



2005년 11월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공연 모습. 왼쪽부터 리더 정성민(39)씨, 박윤규(39)씨, 류재용(39)씨, 조성준(34)씨, 박윤규(33)씨, 추현철(32)씨 등 모두 5명. 이들 모두 음악을 전공한 불자들이며,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불음 전하는 날개짓 훨훨~

부산 불교계 첫 남성중창단 '청공(淸空)' 5월 창단

1월 22일 밤, 부산동의대학교 음악대학의 한 연습실. 저음의 노래 소리가 새어나온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찬불가다. 열린 문을 밀고 들어서니 부산불자성악가협회 남성 솔리스트 중창단 청공(淸空) 멤버들이 연습에 한창이다.

청공의 멤버는 리더 정성민(39)씨를 비롯, 류재용(39), 조성준(34), 박윤규(33), 추현철(32) 등 모두 5명. 이들 모두 음악을 전공한 불자들이며, 음악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올 5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는 금정문화회관 중앙당에서 창단연주회도 갖는다. 남성들만의 구성된 최초의 남성중창단이 공식적으로 창단되는 것이다.

공식적인 창단은 5월이지만 청공은 부산불교계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찬불가 담은 CD 제작 계획

지휘자 모임 정례회 모색

있는 남성중창단이다. 2004년 1월 9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꾸준한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한달에 2-3회 정도 부산불교계 행사에서 축하공연도 가져왔다.

또한 멤버들 모두가 성악을 전공한 석사들이고, 흥법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원불교 경남교구 등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으며 대구시립합창단 단원이거나 전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을 지낸 실력을 갖추고 있어 청공에 거는 기대는 높다.

그러나 청공이 넘어야 할 산은 더 높다. 우선 최초의 남성중창단이라는 자부심만큼이나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한

다는 부담감도 크다. 게다가 청공의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청공의 멤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래 소리가 조그마한 산사에서, 또 저자거리에서, 가정집에서 늘 메아리칠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올해는 찬불가를 담은 CD 제작을 계획 중이다.

시디 제작 비용 마련이 벌써부터 걱정이지만 노래를 부르는 일을 멈출 수 없듯, 음악 포교의 꿈도 멈출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지휘자들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세미나를 개최해, 학술적인 발전방향 모색에도 노력하겠다는 포부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힘을 모으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 닿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교육대 '시끌'

학장 선임관련 갈등 해넘겨 도출

"문제 당사자 학장 추대 상식 밖"

제가 교육의 일번지로 통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시끄럽다.

최근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정상화에 나섰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원효정사 주지)이 신문에 광고까지 내면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오랜 갈등이 표면화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은 2005년 9월, 강선태 학장의 후임자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2003년 박주현 부학장이 유명을 탈리하면서 시작된

부산불교교육대학 차기 학장 문제가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되면서 재학생과 동문회와의 갈등, 강선태 학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혜종 스님과의 갈등으로 확대됐다. 수습위원회가 꾸러지고 강선태씨가 차기 학장으로 추대됐지만 법산 스님이 다시 이를 문제삼고 나섰다.

법산 스님은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부산불교교육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강선태 전 학장이 수습위원회를 통해 합의했던 합의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학장에 위

임함으로써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며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재가 교육의 수장이 될 수는 없는 만큼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새로운 교육의 터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산불교계 전체가 힘을 모아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태씨는 법산 스님의 주장에 대해 "수습위원회의 다수가 다시 학장을 맡아 달라고 해서 어렵게 결정을 내리고 다시 왔다. 앞으로 원만하게 수습할 때까지, 또 사육 이전 등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준비중인만큼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을 지켜보온 부산불자들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가불자 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철저한 자기비판과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미희 기자

마창불교연 불우이웃돕기 행사

마창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1월 20일 마산시청 6층 회의실에서 제16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금강자비회(이사장 이보리)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연합회는 저소득 가정 50세대에 2000만원, 고등학생 7명에게 장학금 840만원, 마산 가포요양원 내 법당 관해사와 환후 후원비로 60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가정 밀반찬비 200만원 등을 전달했다.

마창불교연합회 이사장 지태 스님,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전담식에서 원정 스님은 "더 많은 분들의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촐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6개국 주한 대사들

범어사에서 다도체함



26개국의 주한 대사 부부 및 가족들이 1월 22일 범어사를 찾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칠레, 이집트, 오만, 페루, 태국 등 26개국의 주한 대사 가족 60명은 범어사를 방문, 일주문을 출발 대웅전을 참배하고,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과 함께 다도 체험(사진)을 했다.

이 자리에서 대성 스님은 "인류, 종교, 민족, 국기를 모두 뛰어넘어 세계는 하나"라며 "참선을 통해 종교를 초월 참다운 내면의 세계를 밝혀 종교 갈등과 국가간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도천 스님 유교집 출판 기념회

신부전증으로 20년여를 넘게 투병해오다 지난해 12월 3일 입적한 도천 스님의 유교집 <살아생전 단 한번 만이라도>(남마다 좋은 날) 출판 기념회가 1월 20일 부산 영도 미륵사에서 열렸다.

49재 막재와 함께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스님의 유교집을 낸 박동범 부산불교교육원장과 도천 스님의 고향 친구들, 미륵사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스님의 유교집은 병마와 싸워야 했던 긴 시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특유의 유머와 수행의 힘으로 이겨냈던 얘기들을 담담하게 담고 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재통합 위한 첫 단추

부산지역 청년불자 범어사에서 간담회



범어사에서 열린 부산 청년불자들의 간담회.

부산의 청년불자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1월 21일 범어사 설법전에 둘러앉은 불교청년단체는 모두 17개.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어떻게 하면 청년불교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것인가'를 화두로 머리를 맞댔다.

이날 모임은 1993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이하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의 양분으로 전체칠

룩한 부산 지역 청년단체 임원들의 모임인 청년불교연대가 정기 모임을 열며, 청년불자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자리에 마주앉게 된 청년불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은 밝았다.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해 '전국불교청년대회' 개최, 청년센터 건립, 1만 청년전법단 결성 등이 제안됐다.

오는 6월 10-11일 범어사에서 열리는 제25차전국청년대회를 청년불자들의 힘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억 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에는 그동안의 갈등을 뛰어넘어 힘을 합친다는 대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범어사 청년회 이승룡 회장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부산의 모든 청년법우들이

대불청·조계종불교청년회 통합 노력 구체화

청년대회·센터 건립·전법당 결성 등 의견 나뉘

로를 결단 청년불교운동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1993년 40개에 달했던 청년단체 수가 2005년 16개로 절반 이상 격감한데다, 이제는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 불교청년회가 손을 잡고 청년불교운동의 새발을 짜야 한다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청년,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부산지역 청년불자 간담회에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포교국장 무관 스님, 박정현 범어사 신도회장, 이승룡 범어사 청년회장, 손정현 대불청 부산지구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날 범어사 청년회가 그동안의 골 깊은 갈등을 뒤로 하고 대불청 부산지구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 재통합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희망'의 씨앗을 뿌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범어사 포교국을 주축으로 꾸준히 준비돼 왔다. 범어사를 비

힘을 모아 차근차근 불교운동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청년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대불청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도 "앞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의 힘이 청년운동의 힘이 되도록 하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대불청 부산지구와 조계종불교청년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통합을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청년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천미희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sbs.co.kr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삼천불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우리나라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란,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궁극, 길지라 하옵니니다.... (용꿈 꾸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대한불교 (禪) 선종 총림, 포항칠포 대원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2006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상보호하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6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 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해산 승후 -

1 모집학과

학 과	교육 내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불,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잡·작법과정	바리춤, 나비춤, 법고 등 사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2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면접)

4 합 격 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6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7 접수일자 : 2006년 1월 25일 ~ 2월 15일

8 입 학 일 : 2006년 2월 16일

9 찾아오시는 길

10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